

# 중대재해 정책, ‘기업 자율예방 체계’로 전환된다

노동부, 감축 로드맵 발표  
2026년 OECD 평균 수준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볼듯  
예방노력 따져 책임 묻기로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종합적인 계획)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직후에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기업의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래 규제와 처벌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에 많은 기업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일보다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많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역시 자율예방 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는 공동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 안전보건 종합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따졌을 때 중대재해의 72.6%가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는 인공지능(AI) 카메라, 추락 보호복 등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울러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는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중심 기구인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넓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또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을 육성하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늘린다.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OECD 38개국 중 34위(0.43)에 그친 사망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사망사고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사고자 수를 뜻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 수많은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 보건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한, 우리 현실에 가장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전략”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플렉스 입주기업 튜비콘이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 튜비콘, ‘도전! k-스타트업’ 서 장려상

광주TP I-PLEX 입주스타트업

광주테크노파크는 I-PLEX광주입주스타트업 ‘튜비콘(TUBYCON)’이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에서 장려상(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2’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11개 정부부처가 협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5,420개팀이 10개 예선리그에 참가해 창업기업 15개팀, 예비창업팀 15개팀

을 지정하고 왕중왕전을 통해 대상 등 수상팀 각 10팀씩을 선정했다.

튜비콘 박재현 대표는 미국임상병리사(ASCPi, MLS)이면서 대학병원 검사실에서 15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갖춘 임상병리 전문이다.

의료기기 관련 기업으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진공컵을 이용해 소변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새로운 소변컵(TUBYCON-U)을 개발해 감염 및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업무효율 증대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R&D를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36건을 확

보했고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스위스국제발명 전시회와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2021 상표·디자인권전 특허청장상, 우수디자인(GD)상품에도 선정됐다.

이에 MVP 출시 후 1주일만에 85곳의 기관과 병원에서 구매의향서를 받았으며 현재 제품양산 직전 단계로 오는 12월 말 제품 출시 예정이다.

튜비콘 박재현 대표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모두가 믿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광주 건설수주 ‘뚝’ ... 산업활동도 찬바람

호남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지난 10월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이 전년비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업 생산·출하는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대형소매점 판매는 감소하는 등 지역 산업활동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광주 건설수주액은 31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97.1% 감소했

다.

기타공공단체, 지자체 등의 증가로 공공부문에서 52.6% 증가했으나, 부동산업 건설업 침체로 민간부문에서 97.8%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과 토목에서 각각 97.5%·14.0% 하락했다.

광주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했으나 전월대비 8.2% 감소했다.

전기장비(-28.7%), 기계장비(-9.1%), 음료(14.7%)에서 하락했으나 자동차(18.3%), 전자부품(14.9%) 고무·플라스틱

(14.7%)에서 상승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0.1로 전년비 5.2%(백화점 2.2%·대형마트 10.7%)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8% 감소했고, 전월보다 4.4% 줄었다.

업종별로 기계장비(31.8%), 전기·가스업(3.6%) 등은 증가했으나 화학제품(-24.0%), 식료품(-17.1%), 고무·플라스틱(-16.1%)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6으로 전년동월대비 14.5% 감소했고, 지난 8월(-8.8%)과 9월(-5.0%)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홍승현 기자

## 중기중앙회, 5급 신입직원 공모

내일부터 21일까지 서류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역량 있는 신입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사무직이며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방식은 ‘정규직(5급) 채용 연계형 인턴’으

로 2개월의 현업부서 인턴십을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다.

이번 채용은 역량있는 지원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가 이전과 변경됐다.

필기전형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논술시험을 통해 논리력 등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PT 면접, 토론면접, AI역량검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지원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면접시간도 대폭 늘렸다.

서류접수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입사지원 전용 사이트(kbiz.brms.kr)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재운 중기중앙회 인사부장은 “소통·전문성·책임·혁신·열정 이라는 중기중앙회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채용제도를 많이 개선했고 공정하고 편견 없이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환영”

“처벌규정 국제 기준 완화해야”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전략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준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두고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제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한다”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국제 기준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 대우위니아그룹, 2023년 정기 임원 인사

“내실 강화와 안정에 중점”

대우위니아그룹은 2023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대우위니아는 권의경 대우에이텍 대표이사를 비롯한 계열사 대표이사를 전원 유임하고 인원은 소폭 증진시켰다.

인사 대상자는 대우에이텍 ▲전무 김현태 ▲상무 범형택, 대우에이피 ▲상무 김영남, 대우홀딩스 ▲상무 최광욱, 대우몽베르조합 ▲상무 장관희, 대우글로벌 ▲상무부 최재인 등 총 6명으로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 대해 회사는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변화보다는 내실 강화와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위기가 고조될 수 있음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흔들림 없는 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대우위니아는 “이번 인사를 통해 위기 극복 리더십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속 성장의 해법을 찾는데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농협전남본부는 최근 함평군 대동면에서 (사)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와 함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전남농협, 김장김치 나눔 행사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함평군 대동면에서 (사)고향주부모임 전남도지회, 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김장김치 500여 상자를 전남 관내 취약농가, 농촌지역 홀몸어르신, 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주은 날씨에도 여성조직 봉사자와 농협 임직원들은 절임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시종

일관 웃음꽃을 피웠다. 전남농협은 매년 각 지역에서 김장을 담가 전남 관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박서홍 본부장은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